

쓰즈키보 - 산자용 특수직물 생산이 궤도에 올라

쓰즈키보(都築紡)는 그 동안 산업자재용 특수직물분야를 개척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산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들 특수직물은 프린트기판(print 基板)용 뿐만 아니라 플라스마(plasma) 텔레비전용으로도 사용하게 되었다.

쓰즈키보는 직기폭이 130in와 215in의 광폭(廣幅) 술저(Sulzer)직기를 30대 보유하고 있어, 이들 직기로 산업자재용 특수직물을 제직해 오고 있었다. 약 5년 전부터 프린트기판용 직물을 주문받아 제직하기 시작하였고, 3년 전에는 플라스마 텔레비전의 화면에 사용되는 전자파(電磁波)방지용 직물도 제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극세(極細)의 폴리에스터 필라멘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짠 극히 얇은 직물이며, 이 특수직물을 개발하는 데 1 2년이 걸렸다고 한다.

